꿈의 목표를 키워주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라

에듀후 입시진학컨설팅 대표 이현우

부모들은 자녀에게 “넌 커서 무엇이 될래?”하는 질문을 종종 하곤 한다. 의사, 변호사, 대통령, 과학자 등 선호 직종을 이야기 하면 즐거워하고 기피 직종을 이야기 하면 자녀들은 꿈도 없는 아이로 내몰리는 것이 다반사다. 부모들은 심지어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라는 암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요까지도 하곤 한다. 미래에 무엇이 되라고 꿈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진행은 학 습과 그 외의 생활 등에 대한 성취동기를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혹여 그 꿈을 이뤘다고 해도 사회에 이바지하는 이로 성장해 가기에는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다.

왜, 슈바이처는 훌륭한 의사로 회자 되는가? 어떻게 그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청 했을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은 물론 나라와 더 나아가 세계 평 화와 복지, 행복을 위해 대통령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삶의 철학도 없 이 요행이나, 하찮은 시험 요령, 처세술로 꿈꾸던 대통령의 직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결국 은 국민 모두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말 것이다.

어린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면서도 글을 읽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인전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성공한 사람이 됐다 것을 중요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 평범했던 사람 중 큰 뜻을 품고 묵묵히,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의 성공과 헌신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가문에는 가훈같이 내려오는 계명이 있다. “존경받는 부자로 키우려면 애국심부터 가르쳐라.”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금융업으로 성공을 하여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지만 2 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치로 끌려가는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스웨덴으로 망명의 길을 열어 주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을 그 것도 금융업자가 자비를 털어 면식도 없는 이를 도왔다는 것이 세계 평화를 지탱한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서도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삶의 목표를 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철학으로 무장한 삶이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흔들림 없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다. 청소년들이 꿈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부모세대 모두의 책무이다. 오늘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보자. 너의 (꿈)삶의 목표가 무어니? 세상에 무엇을 이바지 하면서 살고 싶니? 그래, 너무 멋진 생각이다. 넌 반 드시 할 수 있을거야.